

# 석유공사, 과다 성과급 4억원 환수

##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자료 허위 제출 ... 2007년 점수 하향조정

한국석유공사가 과다 지급된 성과급 4억여원을 환수하게 됐다.

정부는 경영실적 평가 과정에서 관련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철도공사에게 기관 경고 조치하고 과다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월31일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석유공사와 철도공사의 2007년 경영실적 평가 점수를 하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7년도 경영실적 평가 때 2002-06년 외국에 낸 법인세를 실적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2007년에는 이를 실적자료에 넣어 마치 경영실적이 더 늘어난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의 2007년 경영실적 점수를 79.382점에서 78.758점으로 내리고, 과다 지급된 성과급 4억여원을 환수토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수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경영실적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오류가 적발되면 성과급 삭감, 관련자 인사조치 등 엄중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01>